

【7월~9월 AC 보고서】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개월간의 섬김의 열매들:

1. Athlete Worship

다양한 영적 전쟁이 있지만, 이를 통해 황폐해진 스포츠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죽기 살기로 스포츠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목숨 걸고 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기에 저희의 각오가 더욱 굳건하여 졌습니다.

2. Club Team

기독교 핸드볼 브랜드 ZION과 협력하여 러닝웨어(육상)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의류 업계에서 일하며 자녀가 육상 선수인 분과 연결되어 육상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차세대 육성을 목표로 하는 육상 클럽 팀도 설립 중입니다. 출범 목표 시기는 2026년 3월입니다.



다운증후군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축제

3. 다운증후군 아동 및 가족을 위한 교류 축제

액티비티에 “진짜사랑해~!”라고 말하며 포옹하는 동작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운증후군 아동은 각자 관심사와 포커싱 포인트가 다르고, 각자 개성이 확실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율동을 빠르게 바꾸거나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물건을 활용한 게임을 도입하는 등 유연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3년 연속 개최하며 점차 다운증후군 아동들의 표정과 움직임을 이해하게 되어 더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 중 처음으로 다운증후군 아동들을 위해 만들어진 그림책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것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언어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족입니다. 이 피플 그룹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서의 두 가지 간증:

●선교 협력과 하나님의 가족

다 알 수 없어도 주 따라가리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현재 진행 중). 그 여정 중에, “우리 가족도 김상가족처럼 함께 선교 여행을 가고 싶다”는 분들이 나타났고, “지방에서 고독하고 외롭게 지내는 분들의 ”도와 달라” 마케도냐의 외침이 있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바라키현 카츠타교회의 보육원 원장목사님을 초청해 ‘발달장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9월에는 홋카이도에서 대학교 크리스천 교수님을 이와테현 오오후나토의 그레이스 하우스 교회(재난지역 지원으로 태어난 교회)까지 와서 ‘셀본 무브먼트(비언어 커뮤니케이션)’로 섬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Athlete Church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의 은사가 쓰임 받고, 교단 교파를 넘어선 선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교회가 힘을 얻어 지역선교의 격려가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각 지역의 아바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동 일본·홋카이도 지역을 돌며

여름 동안,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많은 이벤트도 개최하면서, 만남 자체를 통해 더욱 치유와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새롭게 방문하는 곳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눌 수 없는 고통과 고민을 안고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상처받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분들, 육아로 지친 부모들, 고독하게 세상의 부조리에 고통당하고 있는 선수들 등 많은 이들과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 선하게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리우올림픽 선수부부와 함께

누가복음 4:18-19 KOERV

[18]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기름 부어 나를 택하셨다.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눈먼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보게 되고 억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알리라 하신다.

[19]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해가 왔다고 널리 알리라 하신다.”

기도제목:

1. 세 지역의 베이스 마련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탕으로 다음 세 지역에 베이스가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AC 리트릿 하우스

차세대 선수 육성과 세상에서 상처받은 체육인들을 상담과 멘토링 등으로 치유를 위한 거점. 1억 엔 규모의 너무 좋은 집을 최근 방문했습니다. 해외에서 비전 캐스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나고야: AC 비전 센터

선교의 거점으로, 특히 내년에 있는 나고야 아시안 게임 준비를 위한 장소. 현재 한 집에서 1개월간 시범 거주 중이며, 그 집이 비전 센터로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AC 클럽하우스 (저희 가정의 거점 역할도 겸함)

육상 클럽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기독교 선수를 육성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Athlete Worship

9월 22일(월) 첫 시작,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개최. “스포츠라는 언어를 공통분모로 하는 지체들을 위한 예배”로서 주님의 풍성한 임재를 구합니다. 체육인들이 진심으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도록. 방해하려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기에 진짜배기의 헌신적인 동역자들을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3. Athlete care

전 리우 올림픽 출전 선수부부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년 아시안 게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속 회사의 부조리한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고의로 소속을 풀어주지 않아 이적도 못하고 신음하고 있어 안전한 장소로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AC 클럽 팀과 리트릿 하우스를 통한 정신적·육체적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아직은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세상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부부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와 만나 1년만에 처음 웃을 수 있었다고 하는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 감사도 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부부가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삶에 개입해 주셔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차세대 선수들과 2025동경세계선수권 관전



공립 초등학교(동일본 재난지역)에서의 육상클리닉